

동아시아평화주의의 회복

카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실행위원)
셀린 나오리 (피스보트 국제업무 담당)

- I. 아베의적극적 평화주의의 본질
- II. 일본의 부상하는 민족주의와 미국
- III.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 IV. 새로운 접근과 평화헌법 9조
- V. 지역 평화 기제로써의 헌법 9조

I. 아베의적극적 평화주의의 본질

오늘날, 동아시아는 기로에 서있다. 자민당은 오랫동안 일본의 평화 헌법 수정을 시도해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비판하고 잠재적인 전력의 유지를 금지하는 9조의 수정이다. 아베총리는 평화헌법 수정을 위한 시도를 가속화시켜왔다.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는 이 기세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7월 1일, 일본 내각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헌법 9조 해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를 취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 제한을 현저히 느슨하게 만드는 결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전보장 이사회 설립, 방어 지침 개정, 국방 예산의 증액, 오랫동안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를 현저히 느슨하게 만든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런 조치들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다. 모두 동북아 지역과 국제 사회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집단 자위권에 관한 결정이나 나아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정책은 영토 분쟁이나 역사 인식 문제로 긴장상태인 일본과 이웃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언제나 ‘평화적 국가’ 일 것이라는 아베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중국과 한국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이번 일을 우려스러운 국방 정책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II. 일본의 부상하는 민족주의와 미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역사 수정주의와 결합된 일본의 민족주의의 재연과 분리될 수 없다. 이는 아베 총리 내각 고위 관료들의 도발적인 행동과 수많은 선동적인 발언들로 여실히 드러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관련 공격적인 발언, 일본 역사교과서용 지침 수정, 일본의 전시 행위들을 “침략”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1993 고노 담화와 1995 무라야마 담화 수정 요구, 신나치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과의 사진,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반환, 반중선전과 증오 연설이 같은 맥락이다.

아베는 “전후 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내각 구성은 이 의제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구성원들이 일본에서 가장 큰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Nippon Kaigi)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본 유권자들이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9조의 재해석에 반대한다는 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의 외교나 안보정책 보다도 경제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각의 결정이 부분적으로는 아베의 우익 민족주의 의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행동들은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확장되어온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의 문맥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도쿄에게 동맹의 ‘완전한 동반자’가 되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재촉해왔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집단 자위권 행사 금지는 ‘동맹의 장애물’이라 했다. 더 크게는 헌법 9조의 제약이 ‘시대착오적인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¹⁾

따라서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이 그들의 방어 지침에 대해 재협상 할 때 나온 미국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워싱턴은 당연히 내각의 결정을 지역과 지구의 평화와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라며 환영했다.²⁾ 이 발언에 동조하며 아베는 “강화된 일본과 미-일 동맹은 역제 역할 하하며 수년에 걸쳐 일본과 이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였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지역적 반응이 보여주듯이,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평화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³⁾을 통해 이 결정에 대해 반응 했다. 중국의 국영 신문은 이 결정을 “위험한 신호”⁴⁾이며 일본이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장난친다⁵⁾고 했다. 한국 의회의 위원회⁶⁾는 이 결정이 ‘도발’이나 다름없으며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다.

Ⅲ.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제 여론 조사를 보면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중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이 드러난다. 한 국제 설문조사에서는 79%의 한국 응답자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9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다. 그와 상반되게, 37%의 일본 응답자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7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약 53%의 중국 응답자, 그리고 29%의 일본 응답자들이 2020년 전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증가하는 불신은 아슬아슬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 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현 전략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의문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영토 분쟁, 역사 문제, 그리고 핵무기 계획으로 인한 일본, 중국,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아베 정권이 이를 미국 주도하 군사적 접근을 정당화 시키는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내의 국가들 간에 지금껏 무력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적 성향은 그와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 이는 군비 확장 경쟁을 촉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이 된다.

전 세계 기준 국방비지출을 보면 미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내의 영토 분쟁과 지역 갈등은 이 지역의 국방 지출을 현저히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은 10년간 감소해오던 국방비 증감추세가 뒤집어졌다. 2013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로 국방비지출액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며 일본이 8위, 한국이 10위였다.

Ⅳ. 새로운 접근과 평화헌법 9조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분산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에 있었던 아베와 중국, 한국 정상들 간의 짧은 만남은 실속이 있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이었지만, 대화 재개에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역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는 신뢰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직도 냉전 구조에 갇혀있는 이 지역에 절망적일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다.

새로운 지역 안보 체계를 구성하는 데는 지역 평화, 인간 안보 그리고 협력의 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역학 구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동아시아에 의한, 동아시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구조는 미국 주도의 군사 의존적인 안보 접근법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구조가 되던, 그것은 화해를 위한 진실 되고 조직화된 노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 동아시아는 유럽의 전후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전시 행위들에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전범들을 기리는 행동을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구체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전 일본 총리였던 하타야마 유키오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⁷⁾과 중국 주석 시진핑의 “동아시아-태평양의 꿈”⁸⁾을 포함한 모든 계획들은 지역 내 경쟁구도에서 외교적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상대방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견인력을 얻는데 실패했다. 다자간 기관 설립을 위한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포함하고 상호 협의 해가며,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을 포함한 기존에 있는 틀까지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V. 지역 평화 기제로써의 헌법 9조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성의 기반으로써 작용했던 일본 헌법 9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이 조항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오르며 국제적으로 받았던 주목을 보면 이 사실이 증명된다.

시민 사회는 오랫동안 현재 긴장상태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헌법 9조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이 조항의 가치를 인정해 왔다. <무력 갈등 예방 국제 연대(GPPAC)-동북아시아>⁹⁾,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¹⁰⁾, 피스 & 그린 보트(Peace and Green Boat)¹¹⁾와 같은 다수의 지역 단체들은, 헌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들이 신뢰 구축 방안들을 개발하고 공통의 인간 안보 체제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데 미친 긍정적 효과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2차 대전 종식 70주년을 기념할 준비를 하는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이다.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의 약순환은 한정된 자원을 군비 증강 경쟁에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지역적, 혹은 국제적이 될지도 모르는 분쟁의 위협에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길은 평화와 화해의 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평화와 화해, 분쟁 예방, 군비 축소, 분쟁에 대한 비군사적 해결책,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체제 설립을 위한 협력을 장려하는 지역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일본은 평화헌법에 명시된 평화 원칙과 일치하는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4/12/15)

*** 이 글은 아키라 가와사키씨와 셀린 나호리씨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아키라 카와사키 (Akira Kawasaki) 는 일본 최대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보트(Peace Boat) 실행위원이고 ‘평화헌법 9조 캠페인’의 발기인이다. 국제비핵산국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본에서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활동가이면서 이론가이다.

셀린 나호리 (Céline Nahory) 는 피스보트와 평화헌법 9조 캠페인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운동 단체인 IPB에서 아시아 지역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에서 15년간 동안 평화, 안보, 군축, 인권,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 1) http://csis.org/files/publication/120810_Armitage_USJapanAlliance_Web.pdf
- 2) <http://www.defense.gov/Releases/Release.aspx?ReleaseID=16808>
- 3)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4-07/04/c_133460880.htm
- 4)

<http://www.japantimes.co.jp/news/2014/07/02/national/politics-diplomacy/china-raps-japans-decision-loosen-military-constraints/#.VBxEY-d8FhU>

- 5) http://www.chinadaily.com.cn/world/2014-07/01/content_17629043.htm
- 6)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4/07/04/46/0301000000AEN20140704004200315F.html>
- 7) http://japan.kantei.go.jp/hatoyama/statement/201005/20speech_e.html
- 8)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4-11/09/c_133775812.htm
- 9) <https://www.peaceportal.org/web/gppac-northeast-asia>
- 10) <http://narpi.net/index.html>
- 11) <http://www.peaceboat.org/english/?page=view&nr=93&type=28&menu=107>